

### 京印章 < 刻章 >



平安京時代成為首都的京都開始製作天皇玉璽及文武百官之官印。其特色為繼承中國漢朝印章興盛時期漢印的銅印風格、印章諸多皆以富饒雅韻的漢印篆為主。現今日本對國內外文書上使用的天皇玉璽及大日本玉璽皆由京都印刻師擔任監製製作而成。玉璽及國璽前製作者亦是京都的印刻師傅。

製作：京都市

### 京印章 < 刻印 >



随着平安京的建立、京都成为都城、开始制作天皇御玺和行政机关的官印。其特色是继承了中国汉朝印章鼎盛期被称为汉印的铜印风格。多数是以汉印篆刻为主、稳重而富有雅韵的印章。现今、用于国家文件的天皇御玺和大日本御玺、都是担任中央行事官的京都刻印师制作而成的。御玺、国玺的前任制作者也是京都的刻印师。

制作：京都市

### 교(京)인장



헤이안 도읍이 열리리고 수도가 된 교토에서는 천황의 옥새나 관청의 관인제작이 시작되었다. 그 특색으로는 중국 한나라의 인장의 최고 번성기의 한인(漢印)으로 불리는 동으로 만든 인장의 작품을 이어서 한인전(漢印篆)을 주체로 한 중후하고 우아함이 넘치는 인장이 많다. 현재 국가문서에 사용되는 천황 옥새와 대일본옥새는 교토의 인각사가 임명되어 제작한 것이다. 옥새 국새의 전 제작자도 교토의 인각사이다.

교토시 제작

### Kyo-insho (Seals)



Production of imperial and official seals began in Kyoto when Kyoto became the capital of Japan as Heian-kyo. A notable feature of these seals is that they have taken the style of the copper seals used during the Han dynasty of China, and many of these seals leave a powerful and expressive mark using a style that draws from this history. The imperial seal and official seal of Japan in the present day were made by a seal engraver in Kyoto, and the previous maker of the seals was also a Kyoto seal engraver.

Produced by City of Kyoto